

# 중국, 세계 석재가공 중심국 부상

## 작년 세계 석재무역액의 13%로 성장속도 빨라 WTO가입 수혜 '폭발' 석재수출량 20% 증가

전문가들은 세계 석재가공의 중심이 점차 아시아를 향해 전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2002년 중국 석재 수출액 총액은 16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120억 달러의 세계 석재무역액의 13%를 중국이 차지했고, 세계석재 무역 총액의 1.8%에서 13%를 차지하게 된 것은 불과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2002년 중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천연석재제품을 수입하여, 가치가 2001년 대비 1.82% 하락한 4억여

달러였으나, 반면 양은 다소 증가하여 253만 톤으로 2001년도 대비 14.82%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이 2001년 수입금액과 비슷한 액수로 2001년도 보다 14.82%, 약 32만톤, 14만톤의 석재제품을 더 사들였다는 결론이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실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2002년의 수입세를 대폭 하락하였으며 그중 수입량이 가장 많은 대리석원석, 대리석반제품, 화강석원석의 수입세율이 25%에서 4%로 하락한 것이다. 수입단가 역시 2001년의 208달러/톤에서

174달러/톤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기업이 원자재수입가공과 수출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작년 석재 수입의 주요품종을 보면 전통적인 대리석원석, 대리석반제품, 화강석원석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으며, 각각 1억 2천만 달러, 8천만 달러, 1억 9천만 달러로 각각 수입 총증량의 34.74%, 13.79%, 46.36%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석재를 병행적으로 계산할 경우 대략 2750만달러로 중국 본토석재 생산량의 18%를

차지하는 것이다. 만약 몇몇 연해안 보세구의 수입만큼의 수입품으로 대체한다면, 중국 석재 수입은 4억 4천만 달러를 크게 넘게 될 것이다.

WTO가입의 유리한 기회를 포착한 중국은 작년 석재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해관총서에서 제공한 수자에 의하면 2002년 수출 11억 4천만 달러(958만톤)으로 작년보다 20.68%(24.30%)나 증가하였다. 그중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강석 혹은 건축용 석재는 4억 3천만 달러(120만 7천여톤)를 차지하여, 일본은 이 상품의 최대고객으로 자리잡았다. 이 상품의 제2수출국이 한국으로 1억 3천만 달러(121만 8천여톤)며, 제3수출국은 미국으로 8천만 달러(7만 8천여

톤)며, 제4수출국은 독일로 3천만 달러(17만여톤)이다. 중국 화강석 및 건축용석은 작년 총합 7억 7천만 달러(365만톤)를 벌어들였으며, 화강석 수출은 세계석재 당해 수출 총량의 15%를 차지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화강석 생산 및 수출 대국이 되었다. 석재 역시 지속적으로 7년간 중국 건축자재 단일상품 수출 1위를 차지하였다.

석재공업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중국은 작년 석재기계수출을 역시 호황을 누렸으며 처음으로 3000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북경성은 여전히 중국 석재수출의 제1인자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7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중국사이트 번역 기사 http://www.xibian.net)

잇. 중국에 어떤일이



2천년 된 술이 있다니!

중국의 고도(古都) 시안(西安) 북쪽에서 21일 전한(前漢, BC 206-AD 25)시대의 술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한 귀족의 묘지에서 발견된 20여점의 정교한 청동기 중 하나에 담겨있던 50l의 미주(美酒)는 비록 색깔은 청동기와 같은 청록색으로 변했지만 향기는 풍격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 생후 8개월 된 남아 뱃속서 태아 발견

생후 8개월 된 중국 남아 어린이의 뱃속에서 이 어린이와 쌍둥이 동생이 발견됐다고 신화통신 보도. 이 사건은 후난(湖南)성의 한 병원에 입원한 이 남아의 몸을 검사한 결과 낳일게도 뱃속에 태아가 발견됐다고. 이 남아의 쌍둥이 동생인 태아는 소년 뱃속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남이는 배가 약간 커보였을 뿐 외형상 정상적으로 보였다고 한다.

신화통신은 병원 의료진들은 남자 아이가 임신한 경우는 매우 희귀한 일이라고 언급했으나 태아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발표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 두들겨 맞는 홍콩경찰

경찰에 대한 홍콩 사람들의 신뢰는 전폭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만큼 대접도 받는다. 그러나 홍콩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사정이 변하고 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민심이 흉흉해진 탓일까. 경찰에게 대들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더 이상 '고분고분한 시민과 권위있는 경찰'이 아니다. 홍콩 경찰의 권위가 예전만 못한 것이다.

얼마 전 마야사범 단속 경찰과 교통위반 단속 경찰이 두들겨 맞았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어리었다. 30대 경찰이 오토바이 폭주족 10여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다 들먹을 맞은 것이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5개월 동안 '경찰 공격 사건'이 2백39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어난 수치다. 경찰들은 "초동학생도 대드는 세상"이라며 고개를 찡그린다. 젊은이의 거리(대하로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아임 경찰은 "10대 초반 소년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더라"고 내뿜듯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의 행정능력을 탓하는 의견도 있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진 탓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어찌되었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 중국 석재시장 '환경인증' 등장

### 특목기업에 올림픽관련 및 해외시장 추진 혜택

석재기업은 국내외의 저명한 시장 경쟁력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시장통행권' 즉 '환경기준인증'을 획득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중국 건축자재시장의 석재종서는 명예중서, 추천중서, 방사선 측정중서 등 많은 종류의 중서가 있으며, 중서를 발행하는 기구 역시 수입이 많아, 소비자는 어느 중서가 석재의 품질을 제대로 보증하는지 알 수가 없다.

중국석재공업협회 소식에 의하면 중국석재산업 수출시장을 확대


하고, 2008년 환경 올림픽에 부합하기 위해, 중국 석재공업협회는 중국내 권위있는 환경산업인증기구를 만들었다. 작년 11월 말에 중국석재환경기준산업 신청관리사무소가 설립된 이래 중국 석재산업 기업이 적극적으로 석재 녹색환경 인증인증을 획득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관련자에 의하면 환경인증의 실시는 중국석재산업이 곧 전통적 경영방식을 떠나 환경보호를 통해 시장경쟁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적 대열에 합류하고자 함을 의

미한다. 오랫동안 석재기업이 지니온 방사선기준초과라는 불명예를 이제 곧 때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관련자는 환경기준인증 '녹색카드'를 획득한 석재기업은 향후 2008년 올림픽 건설공정 및 국내 부동산시장을 향한 해외시장에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국의 재투자문의 우선 선택권을 가지게 되며, 국가산업의 사양정책에 외기 면세 혜택 및 국가프로젝트의 입찰에 있어 더 많은 가산점을 따는 특별한우를 받게 된다.

(중국사이트 번역 기사 http://www.xibian.net)

### 중국어 한마디



我 wǒ [워]	나, 저	A: 你好吗?	안녕하세요?
你 nǐ [니]	너, 당신	Nǐ hǎo ma?	[니 하오 마]
好 hǎo [하오]	좋다	안녕하세요?	
很 hěn [헨]	아주, 몹시, 매우	B: 很好. 你呢?	Hěn hǎo. Nǐ ne?
也 yě [예]	역시, 또한	[헨 하오 니 네]	
吗 ma [마]	~까? (의문조사)	예, 잘 있습니다. 당신은요?	A: 我也很好.
呢 ne [네]	생략형 의문조사	Wǒ yě hěn hǎo.	[워 예 헨 하오]
		저도 잘 지냅니다.	

<자료제공 : http://china.okvary.com>

### 강소성 의흥시 민석음석재시장을 찾아서

강소성 의흥시 민석음은 장강 삼각주 중심에 위치한 면적 43.77km<sup>2</sup>, 인구 2만 7천여명, 23개 촌을 구비하여 발전가능성을 지닌 곳이다. 민석음을 방문하면서 기자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의흥시 민석음(民石音)은 본래 돌 하나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재 공교롭게 전국 최대 석재도매 전문시장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돌이 없는 민석(民石) 읍이 돌 집산지가 된 것이다.

일단 민석음에 들어서면 읍 진입표지판 역시 거대한 천연석으로 되어있다. 고속도로 길 양편으로 2-3층의 건물들 앞 바깥에는 '중국록', '계림백', '아시아홍' 등 각양각색의 석재들이 수심미라 줄지어 있다. 돌 하나 나지 않는 곳이 어떻게 수 만석의 돌 집산지가 되었을까. 민석을 담원된 서기에 의하면 이 석재시장은 10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제일 처음 왕야성이라 불리는 사람이 의지에 갔다 돌아올 때 건축공정을 하기 위해 한 무더기의 석재를 싣고 돌아왔는데, 농아를 장소가 미치지 않아 걱정하던 한 장소를 찾아가 민석음에 왔다가 이것을 보고 돈을 벌 수 있을거라 판단해 이곳에 땅과 건물을 빌리게 된다. 그들은 푸지엔 지역에서 석재를 운반해와 석재매매를 시작하였다.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어 전국 각지역 상인들이 본주하 불려들게 되자, 서서히 자연적으로 대규모 석재도매시장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현재 푸지엔, 광시, 산둥 등 11개 각 성화 시의 300여개 상인들이 여기서 가공하여 석재를 판매한다. 석재제품은 전국 각지로 팔려가고, 일일 교역량은 약2만톤이며, 먼 거래 총액은 5억원에 이른다.

사실 중국은 수많은 석재 도매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민석음 석재시장은 전국 최대규모이다. 이는 '민석'이라는 지명의 공교로운 일치와 지명도를 높인 점도 있으나 더욱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기회를 확실히 포착한 데에 있다. 1999년 석재시장 사업이 흥황을 이룰 때 민석시장은 당시 중국이 저급 석재판매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각 지역 시정부의 대규모 건설 계획을 예상하여 비교적 고급의 수출석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민석음은 수입석재를 경영하는 상인들이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금 수속의 간소화, 서비스 개선 등의 정책을 내어 적극적으로 석재상들을 끌어들이었다. 현재 이 시장은 스페인, 이집트, 이탈리아 등 6개 국가 각 지역의 석재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석재수입을 하는 형페이 회사는 제품 보유량이 인민폐 1000 만원에 이른다.

## 포천석

본 석재는 P파속도가 3440m/sec로 비교적 낮으며 흡수율도 0.39%로 화강석재의 흡수율 상한치에 근접하고 있는 석재로 설계하중이 작고 표면 윤기도 매우 우수함

- \* 압축강도는 1990kg/cm<sup>2</sup>로 강도 특성도 우수한 석재임
- \* 강도특성 및 마모저항성이 대단히 우수함
- \* 계단 등 내부바닥재나 내부건축구조재로 사용시 매우 우수한 품질을 지닌 석재임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용현리 677-2  
TEL 031) 531-6305  
FAX 031) 531-6367  
H.P 011-336-2932